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설치 건의안

의안 번호	498
----------	-----

제안년월일 : 2002. 3. 27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1. 주 문

-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보은, 영동, 진천, 단양지역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설치 건의

### 2. 제안 이유

- '98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산하에 제천·단양출장소, 진천·음성출장소, 옥천·영동·보은출장소로 통폐합되면서 품질관리와 유통 개선 등을 담당할 독자적인 출장소가 없는 보은, 영동, 진천, 단양 지역의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

### 3. 참고 사항

“ 없 음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설치 건의 (안)

존경하는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국정에 다망하심에도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향상, 그리고 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농업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농정시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나름대로 복지농촌을 꿈꾸며 수도작, 과수와 원예 등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영농의 과학화와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농산물이 급증하여 농산물가격 폭락과 함께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이중, 삼중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농산물 품질관리와 유통개선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우리 농민의 사랑을 받아온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가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산하에 제천·단양출장소, 진천·음성출장소, 옥천·영동·보은출장소가 통폐합되면서, 품질관

리와 유통개선 등을 담당할 독자적인 군출장소가 없는 곳은 우리도 관내 영동, 진천, 보은, 단양 등으로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효율적인 품질관리와 유통개선 등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제천·단양출장소, 진천·음성출장소, 옥천·영동·보은출장소의 통폐합은 농산물 생산량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단순한 지리적 여건만을 감안하여 통·폐합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15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영동, 진천, 보은, 단양지역은 주요 농·특산물의 생산량이 타지역보다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농산물이 이제는 도시·농촌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등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는 농산물의 품질관리, 안전성검사, 품질인증 등 종전의 벼농사와 관련된 업무보다는

과수, 원예 등 발작물분야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품질인증 등을 담당해야 할 별도의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필요함에도 출장소마저 없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먼 거리를 출장 지도하는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의 농정시책이나 행정조직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수요에 따라 운용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행정수요가 변하는데도 단순히 지리적 이점이나 벼농사 위주의 행정수요만을 가지고 행정기구 설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기구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우리도 관내에 영동, 진천, 보은, 단양지역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출장소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2. 3.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